

病院管理학술대회 日程 확정

오는 11월 22·23일 이틀동안

大韓病院協會는 올해 개최 예정인 「병원관리 종합학술대회」를 오는 11월 22일과 23일 이틀동안 열기로 확정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나라 병원 개원 100주년을 기념하는 종합학술대회이다.

학술대회 일정을 보면 11월 22일 오전에는 개회식과 특별강연을 갖고 오후에는 「변천하는 사회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분야별 병원관리 향상방안」을 주제로 약제, 간호, 의무기록, 방사선 등 분야별 주제발표가 있게 된다. 23일에는 전날에 이어 병원급식, 임상병리검사, 원무관리, 의료장비 등의 분야별 주제발표가 계속되며 종합토의 및 결론이 있게 된다.

한편 병원협회는 7월 16일이 준비를 위한 제2차 준비위원회를 열고 이번 병원관리 종합학술대회의 최종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이날 정오 동보성에서 열린 준비위원회는 85년도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는 당초계획에서 특별강연과 건축설비 및 의료장비를 추가 반영하고 종합토의 및 결론을 오전중에 종료하도록 했다. 또 학술회의

의 방법을 전체적으로 타분야의 관리향상 방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야별 토의는 각 학회별로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 당초 계획대로 전체 학술회의로 할 것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본회 黃泰植 학술이사, 河溟煜사무총장을 비롯 김낙두병원약사회장, 나명희임상간호원회장, 박제윤의무기록협회장, 이문주방사선 협

회부회장, 오홍백 임상병리사협회부회장, 배성준서울지구병원관리협의회장, 허수진서울대의공학과 기사장 등이 참석했다.

病協, 창립 26주년 기념

大韓病院協會(회장 白樂院)는 7월 2일로 창립 제26주년을 맞았다.

사무국은 이를 기념하여 7월 6일 하루 전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남이섬에서 체육행사를 가졌다.

病院 자체소독을 認定

保社部 관계법 개정에 들어가

보건사회부는 현재 전염병 예방법상 종합병원, 병원 등은 매월 1회씩 의무적으로 소독대행업자에 의해 소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감안, 시설 장비를 갖췄을 경우 병원 자체소독도 인정하기로 하고 관계법개정작업에 들어갔다.

보사부의 이러한 작업은 대한병원협회의 강력한 건의를 받아 들인데서 비롯되었는데, 보사부는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라 하더라도 관계규정에 준한 장비를

갖추고 자체소독을 실시할 경우 이를 잠정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本誌 이달부터 電算발송

이달부터 「대한병원협회지」가 전산처리되어 발송된다.

이에 따라 대한병원 협회는 배부처 주소를 모두 전산입력함으로써 발송에 더욱 신속·정확화를 기하게 됐다. 발송 봉투도 도안화된 흰전산화 봉투를 사용함으로써 산뜻한 모습을 갖췄다.

병원水道「영업용 2종」건의 釜山·大邱·仁川·濟州 등 4 지역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釜山·大邱·仁川 및 濟州지역에 소재한 病院의 수도료를 현행 영업용 3종에서 영업용 2종으로 종별 변경해 줄 것을 내무부에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이 건의에서 현재 병원의 수도는 환자의 진료 및 수술 등 국민의료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등 4개지역에서 전문음식점, 호텔, 백화점 등과 같이 영업 3종으로 묶은 것은 의료의 공공성을 감안치 않은 처사라고 지적하고 이를 영업 2종으로 종별변경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 지역의 수도요금에 영업 3종에서 영업 2종으로 변경될 경우 이 지역 83개 병원이 年間 2억 3천 8백만원 가량의 경제적 혜택을 입게 된다.

전반기 修練조사 마쳐

금년도 「병원표준화 및 수련병원 실태조사」전반기 심사가 7월 12일 끝났다.

후반기 심사는 오는 8월 19

일부터 전반기에서 제외된 45개 병원과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전반기 심사에서는 전국의 조사 대상 1백87개 병원과 기관 가운데 1백42개 병원과 기관의 심사를 마쳤다.

柳·趙 상임이사 選任

대한병원협회는 7월 1일부로 延世醫大세브란스병원 柳在德원장과 慶熙醫大병원 趙

軫奎원장을 상임이사로 선임했다.

柳원장은 金春奎이사의 후임으로 趙원장은 金泰珍이사의 후임으로 각각 선임했다.

善行 병원직원에 표창

중앙의대 부속 성심병원의 백인길안내원이 7월 16일 오후 3시 보사부 감사관실에서 사회정화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백씨는 최근 이병원 수납창구 앞에서 자기앞수표 및 2백여만원의 현금을 주워 신고 함으로써 분실자에게 되돌려 준 선행을 했다.

진료비 積滯, 경영압박 加重

自保 84억 4천 7백만원 밀려

1984년 이전과 85년 3월까지 청구된 自動車保險진료비중 미수금이 전국 69개 병원에 84억 4천 7백만원에 달하고 있어 병원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대한병원협회가 전국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타난 것으로 금년 3월달 현재 미수금은 84년도 이전분이 4백55건에 3억 8천

9백여만원, 84년도 분이 1천 6백36건 32억 5천 7백여만원 그리고 금년들어 3월까지 2천 2백건에 48억여만원으로 총 4천 2백91건에 84억 4천 7백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병원협회는 적체된 진료비 84억 4천여만원을 7월말까지 완불함과 동시에 향후 청구한 진료비가 1개월내에 지급되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해

KHA 뉴스

줄 것을 비롯한 自保患者진료비 지급업무개선을 自動車보험(株) 측에 협조요청 했다.

병원협회는 자동차보험환자 진료비 지급에 있어 진료비 지급을 지연시키는 複數事故 未合意, 訴訟, 長期入院 등 제반 사항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청구권 진료비를 임의 삭감했을 때 상세한 삭감내용을 통보해 줄 것 등 6개항의 개선책을 自保측에 요청했다.

병원협회는 또한 현행 자보환자 입원비 1일 5천1백50원(식대 제외)은 의료보호환자 1일 입원료(내과 6천9백70원, 외과 5천9백20원, 중환자실 8천20원)에 크게 못

미치고 원가에도 미달된다고 지적, 최소한 의료보험수가 수준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현행 자보환자 食代 1일 3천6백원으로는 給食 업무에 지장이 있으므로 최소한 産災患者와 동일한 1일 4천5백원 수준으로 조정해 줄 것도 아울러 요청했다.

不法 무기 자진 신고토록

정부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을 불법무기 자진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중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불법 소지의 형사상, 신분상 책임을 일절 묻지 않기로 했다.

이번 불법무기자진 신고기

간에는 불법으로 소지한 권총, 엽총, 각종 군용총포류 등과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기념품 등으로 받은 총기를 포함한 일체의 무기류가 신고대상이다.

바오로病院 전화 변경

가톨릭의대 부속 성바오로병원의 전화번호가 7월부터 변경됐다. 변경된 새 전화번호는 965, 0121~0145.

淸州病院 전화 변경

의료법인 淸州病院의 전화번호가 7월부터 변경됐다. 변경된 새 전화번호는 淸州 52, 3101~5(대표) 52-3106(응급실)

대한병원협회지

(通卷 126 號)

'85년 7·8월호(月刊)

등록일자 : 1972년 4월 27일

등록번호 : 제 라1691호

인쇄일 : 1985년 7월 31일

발행일 : 1985년 8월 1일

發行人 : 白樂院

編輯人 : 黃泰植

印刷人 : 金善勳

발행소 社團法人 大韓病院協會

우편번호 10000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가49 전화 : 275-7066

JOURNAL OF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Vol. 14, No. 7·8

JUL·AUG. 1985

Publisher : Nak Whan Paik

Editor in Chief : Tae Sik Hwang

Published Monthly

by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49, 2-Ga, Chung Moo-Ro,

Seoul, Korea TEL. 275-7066

□ 編輯委員 : 韓斗鎭 朴利甲 金教命 黃泰植 梁萬奎

* 이協會誌에 게재된 내용은 반드시 본회의 公式的인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